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2동, 주민자치회와 청소업체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시간 : 2023/03/13 [14:06:00] 김영아 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2동은 지난 10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인 명성환경 관계자와 깨끗한 매탄2동 만들기를 위한 쓰레기·청소환경 간담회를 실시했다.



▲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2동. 주민자치회와 청소업체 간담회 가져 ◎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 날 간담회에는 매탄2동 손성균 주민자치회장을 중심으로 배지환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매탄2동 주택가 지역의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배출과 수거에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서로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손성균 주민자치회장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청소업체와 환경관리원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면서 모두가 한 뜻으로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신소영 매탄2동장은 "앞으로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투기 지역에 집중적인 단속,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